유티티 www.uttsys.co.kr

IT시대의 혁명으로 불리는 유비쿼터스는 언제(Anytime), 어디서든(Anywhere), 어떤기기(Any-Device)를 이용하든 자유롭게 네트워크를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다. ㈜유티티(대표 최규현)는 이러한 유비쿼터스 솔루션을 개발하는 회사이다. 아직은 설립 2년의 작은 회사지만 성공 벤처기업의 신화를 만들어가고 있다.

유비쿼터스 네트워킹 선도 기업

UTT(Ubiquitous Tube Technology)는 회사명 그대로 유비쿼터스 솔루션을 개발하는 회사이다. 이 회사가 개발한 동영상 압축 전송 기술인 * '디바인(DiviN)' 솔루션은 언제(Anytime), 어디서든(Anywhere), 어떤기기(Any-Device)를 이용하든 자유롭게 실시간 동영상을 전송하여 유비쿼터스 네트워킹을 가능케 만들어준다.

"유티티의 디바인 솔루션은 일반 인터넷 유 · 무선망을 이용해 원격지를 실시간 동영상으로 체크 할 수 있습니다. 특히 방범, 방재 및 재난감시 시스템, 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, e런닝 시스템, 화상회의시스템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."

유티티는 지난 2005년 3월, 최 대표를 주축으로 기업 연구소에서 함께 일하던 연구원이 의기투합하여 회사를 설립했다. "연구원들 개개인이 쌓아왔던 영상처리 기술을 보다 전문적으로 연구 · 개발하기 위해서 뜻있는 분들과 의기투합해서 벤처회사를 창업했던 것이죠."

물론 창업에는 어려움이 뒤따랐다.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벤처기업을 설립했으니 가족들의 생계걱정도 컸을 것이다. 그리고 자금, 마케팅, 인력 등 모든면이 어려웠다.

"창업당시 운영자금 조달이 가장 큰 문제였죠. 영업과 마케팅도 한계가 있었고 기술에 대한 배타적 경계, 개발인력도 모자랐죠." 대다수 벤처회사가 겪는 과정이지만, 유티티는 창업시작부터 3중고에 시달렸다. 하지만, 최 대표와 연구원들은 기술력에 대한 믿음으로 성공의 확신을 가졌다.

유티티는 회사설립 후, 불과 한 달도 안 되어 지능형 보안감시 솔루션 디바인을 출시했고 삼육의명대학에 유비쿼터스 캠퍼스(U-campus) 실현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. 또한 2006년에 충청북도 재난 종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성과를 일궈냈다. 특히 유비쿼터스 캠퍼스 구현은 교내 네트워크 교육환경 조성이라는 데 의의가 크다.

최 대표에 따르면, 삼육의명대학 유비쿼터스실은 '디바인' 솔루션을 기반으로 동영상 제작을 위한 디지털 편집시설, 강의내용을 디지털로 서버에서 실시간으로 인터넷 방송 및 VOD 자동 생성, 저장하기 위한 엔코딩(Encoding)설비, 각종 매체의 입출력 장치 등으로 구성돼 있다. 이런 시설을 통해 멀티미디어 강의, 각종 교육자료 제작, 실시간 강의 및 VOD 인터넷방송, 컴퓨터실습 및 학습이 지원되어 교육현장에 활용된다.

언제, 어디서든, 어떤기기를 이용하여 e런닝이 가능케 된 것이다. 최 대표는 앞으로 이러한 유비쿼터스 환경을 보다 더 확고히 실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응용솔루션을 개발 · 공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. 이를 위해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여 회사외형을 키우면서 기술인증을 늘려나가 내실까지 튼튼하게 만드는 강한 벤처회사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.

"현재 글로벌 기업과의 기술 협력을 통한 영업 · 마케팅 보완에 힘쓰고 있죠. 또한 회사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기술 컨설팅을 통한 기술 인증, 창의력 기술 인력 양성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." 최 대표는 "이같은 성과를 이루어내면, 지난해 3억 5천만 원 매출에서 올해는 15억 원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기대한다"고 자신했다. 아직은 작은 회사지만 최 대표와 연구원들은 성공 벤처기업의 신화를 만들어가고 있다.

◆ 용어설명 ◆

디바인(DiviN) 솔루션

인터넷망을 이용해 영상과 오디오, 텍스트 등의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웹 캐스팅 기술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용 · 구현할 수 있다.